

充 填 流 動 塔 의 發 達

姜 雄 基*

緒 論

流動層은 氣固系나 液固系를 莫論하고 層 내에서의 热傳達이 좋고, 固體의 混合이 빠르고, 固體輸送이 便利한으로 固體를 取扱하는 化學 工業, 金屬工業 全般에 걸쳐 넓게 利用 되고 있다. 그러나 普通의 流動塔, 特히 氣固系의 流動塔은, 그 操業이 不安定하고, 壁影響等으로 設計條件를 定하기가 어렵고, 固體의 連續輸送操業時에는 short-circuit 가 일어날 可能성이 많은 등의不利한 點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流動塔(特히 氣固系)이 氣泡相(bubble phase)와 粗密相(dense phase)으로 되어 있다는 最近의 理論¹⁾으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卽, 流動層內의 氣泡는 裝置의 한 가운데로 通過하려고 할 것이고, 氣泡끼리 붙어서 上昇途中 점점 더 큰 氣泡가 될 것이므로, 氣體入口인 塔下部에서 氣體分布를 均一하게 한다 하더라도, 塔上部에서는 不均一한 流動層이 되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不利한 點을 없애기 위하여 最近에는 流動層 속에 多孔板²⁾, 同筒板^{3,4)}, 金網板^{5,6)}, 防害板⁷⁾ 등을 넣는 方法이 發達되었으며, 또한 充填物을 流動層에 넣어서 操業하는 充填流動塔이 發達한 것이다.

充填流動塔이라 함은 球(solid sphere), 圓筒(solid cylinder), Raschig ring, Berl saddle, 金網圓筒(screen cylinder)等을 채워둔 充填塔 속에서 固體粒子를 流動시키는 裝置를 말하는 것으로, 流動層 操業이 比較的으로 安定해 지고, 塔 높이의 制限을 받지 않으며 巨視的 均一性(macrosopic smoothness)을 갖는 流動操業이 되는 것이 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關한 研究는 主로 美國 Argonne 原子力研究所와 加國의 國立研究院 研究所에서 進行되였으며 Argonne에서는 球, 圓筒 等 充填物을, 加國研究所에서는 金網圓筒을 主로 使用하였다.

固型 充填 流動塔

Gabor 等 Argonne 研究所 研究員들은 Uranium 原子爐 燃料의 處理 및 再處理 工程中 弗化反應에 充填 流動型의 裝置를 利用하였다.^{8,9)} 卽, 圓筒型 充填物의 Uranium Oxide 周圍에 非活性 固體粒子를 流動시켜,

* 原子力研究所 研究官

流動充填塔으로 操業하였는데, 이로서 普通의 充填塔操業에 比해서, 反應熱 除去, 物質傳達 等이 顯著히 增加되었다고 한다.

그後 이러한 固型 充填流動層에 關한 여러 가지 基礎의 인 研究—氣體混合¹⁰⁾, 固體混合^{11,12)}, 热傳達^{13,14,15)}—가 活潑해졌다. 이러한 研究의 結果로 从而 보아一般的으로 充填流動層의 混合特性은 普通의 流動層에 比해서 總括的인 混合(overall mixing)은 減退되나 部分的으로는 같은 程度의 混合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充填流動層은 巨視的 均一性(macrosopic uniformity)을 維持하므로 손 簡易 理論의 模型을 通用할 수 있고 scale up도 可能하다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卽, 固體 및 氣體混合에 있어서는 擴散模型을 세울 수 있음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Fig. 1은 擴散模型으로서 一은 固體擴散系數의 實測値들을 圖示한 例인데, 이 實測値들은 固體의 平均速度가 氣體速度에 比例함을 假定한 模型(方程式1)과 잘一致함을 볼 수 있다.¹²⁾

$$D = 0.0558 D_p K \left[\frac{V - V_{mf}}{V_{mf}} \right] \quad (1)$$

但 D =擴散系數, ft^2/sec

D_p =充填物 直徑, ft

$K = F \cdot V_{mf}$, ft/sec

F =流動層體積／氣泡體積

V =氣體速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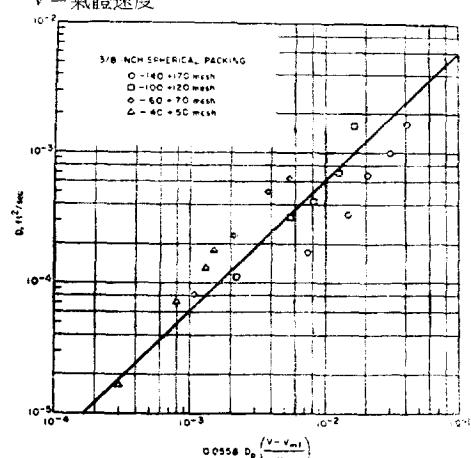


Fig. 1. General correlation of lateral solids mixing in a fluidized packed bed¹²⁾

V_{mf} = minimum fluidization에서의 氣體速度

또한 Gabor等¹³⁾은 热傳達에 있어서도 擴散模型을 써서 實驗值와 比較 하였는데 理論과 實驗이 잘一致됨을 보았고 式 2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frac{k_e}{\rho C_p} = (0.0075) \cdot 0.0558 D_p \left[\frac{V - V_{mf}}{V_{mf}} \right] \quad (2)$$

但 k_e = effective bed thermal conductivity, B. t. u/(hr) (sq. ft)(°F/ft)

ρ = density of fluidized particle, lb/cu. ft.

C_p = heat capacity B. t. u/lb°F

金網圓筒 充填 流動塔

Sutherland等¹⁶⁾은 Raschig rings, Berl saddles, spherical balls, screen cylinders(金網圓筒)들을 充填物로 사용하여 流動層의 壓力差, 最低 流動速度, 流動層의 膨脹, 热傳達等에 關한 基礎의in 觀察을 하였다. 研究의 結果, 特히 總流動層 容積 5% 以下밖에 占有하지 않는 金網圓筒을 使用했을 경우 流動層은 均一하고 安定한 操業이 됨을 보았으며, 이 充填物이 앞으로 크게 利用 될 수 있을 것임을 指摘하였다. 그 後 金網圓筒 充填流動層에 關하여, 固體粒子 分別^{17, 18)}, 觸媒反應^{19, 20)}, 鐵鑄石의 直接還元²¹⁾, 固體混合²²⁾, 氣體混合²³⁾, 壓力變動²⁴⁾等, 多方面에 걸친 研究가 進行되었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金網圓筒 充填을 한 流動層은 液固系 流動層이라 하더라도 aggregative fluidization(bubble이 存在하는 경우)과 particulate fluidization(普通의 液固系 流動層과 같이 bubble이 生기지 않는 경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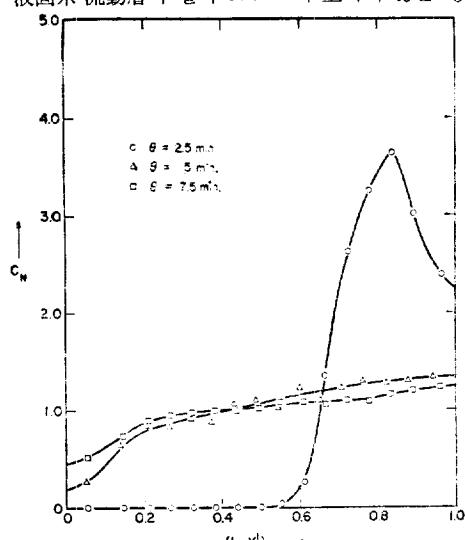


Fig. 2. Typical longitudinal mixing curves for an unpacked fluidized bed, $V/V_{mf}=1.5$; bed height=90cm; column diameter=5cm, where C_N =normalized concentration, θ =time after impulse, X' =dimensionless length from the top of the b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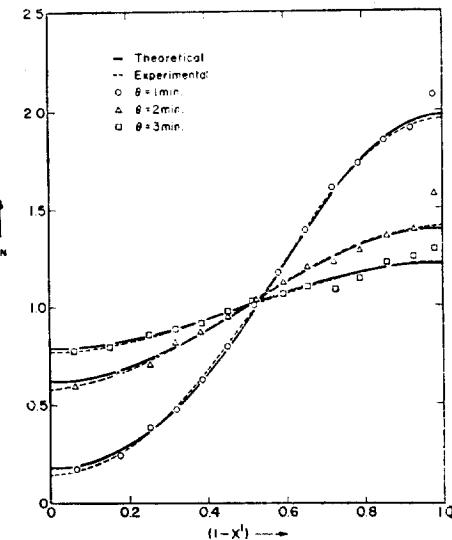


Fig. 3. Typical longitudinal mixing curves for a screen cylinder packed fluidized bed, 14 mesh, 1/2" screen packing; $V/V_{mf}=8.0$; bed height=102cm; column diameter 5cm

두 性質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特徵이며 particulate 한 性質은 氣體流速이 커질 수록 顯著하게 된다. 또한 氣泡의 크기는 充填物의 크기에 正比例 할 것임이 指摘 되어 있다. 特히 流動層內의 混合 狀況은 良好한 部分의in 混合(local mixing)을 하고 全體的으로 巨視的 均一性을 주며 擴散模型이 잘 맞는다.

Fig. 2와 Fig. 3는 각각 普通의 流動塔과 金網圓筒을 充填한 流動塔에서의 軸方向 固體粒子 混合을 流動層上部에 濃度衝擊을 준 후 濃度變化로서 表示한 것이다. 圖에서 알 수 있듯이 普通의 流動層에서는 擴散模型이 全히 成立 되지 않으며 充填流動層인 경우는 잘一致하고 있다. Scale-up에 關해서는 氣體混合을 中心으로 한 研究²³⁾가 있는데, 2'', 6'', 12'' column에서 같은 金網充填인 경우에는 같은 結果를 주었고 이로 미루어 그대로 scale up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結 言

觸媒反應, 流動焙燒, 乾燥 等 流動層은 넓게 使用되었으나, 操業이나 scale up이 不安定 하여 여러 가지 難點이 많았었다. 充填 流動塔은 이러한 難點을 많이 解消시킨 것으로, 앞으로 이의 利用이 촉망된다.

또한 이러한 充填流動 原理를 適用함으로서, 浮選, 原子爐의 热傳達, 固體粒子輸送 等을 改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앞으로 이 方面의 研究는 應用을 中心으로 行해 지리라 추측된다.

参考文献

- (1) J. F. Davidson and D. Harrison, "Fluidized Particles" Cambridge Univ. Press, 1963
- (2) W. Volk et al, Chem. Eng. Progr. Symp. Series **58** 38, (1962)
- (3) W. Volk et al, Chem. Eng. Prog. **58**, 44 (March, 1962)
- (4) R. H. Overcashier et al, A.I.Ch.E. Journal **5**, 54 (1959)
- (5) W. K. Lewis et al, A.I.Ch.E. Journal **5**, 419(1959)
- (6) R. C. Bailie et al, I.E.C. Fund., **2**, 245(1963)
- (7) L. Massimilla and S. Bracale, Ricerca Sci., **26**, 487 (1956)
- (8) J. D. Gabor, W. J. Mecham and A. A. Jonke, Chem. Eng. Progr. Symposium ser. No. 47 **60**, p. 96 (1964)
- (9) W. J. Mecham, J. D. Gabor, and A. A. Jonke, ibid. p. 76
- (10) J. D. Gabor and W. J. Mecham, Ind. Eng. Chem. Fund., **3**, 60 (1964)
- (11) J. D. Gabor, A.I.Ch.E. Journal, **10**, 345 (1964)
- (12) ibid., A.I.Ch.E. Journal, **11**, 127(1965)
- (13) J. D. Gabor, B. E. Strangeland and W. J. Mecham, A.I.Ch.E. Journal, **11**, 130 (1965)
- (14) E. N. Ziegler and W. T. Brazelton, Ind. Eng. Chem. Process Design and Development, **2**, 276(1963)
- (15) A. P. Basakov and V. S. Vershinina, Intern. Chem. Eng., **4**, 119 (1964)
- (16) J. P. Sutherland et al, A.I.Ch.E. Journal, **9**, 437(1963)
- (17) J. P. Sutherland and K. Y. Wong, Can. J. Chem. Eng., **42**, 163 (1964)
- (18) C. E. Capes and J. P. Sutherland, I.E.C. Process Design and Development, **5**, 330 (1966)
- (19) T. Ishii and G. L. Osberg, A.I.Ch.E. Journal, **11**, 279 (1965)
- (20) A. E. McIlhinney and G. L. Osberg, Can. J. Chem. Eng., **42**, 232(1964)
- (21) G. L. Osberg and T. A. Tweddle, I.E.C. Process Design and Development, **5**, 87 (1966)
- (22) W. K. Kang and G. L. Osberg, Can. J. Chem. Eng., **44**, 142 (1966)
- (23) B. C. Chen and G. L. Osberg, paper submitted to Can. J. Chem. Eng. (1967)
- (24) W. K. Kang and G. L. Osberg, paper submitted to I.E.C. (1967)